

오영진의 「맹진사대경사」 연구

△와△*

- I. 머리말
- II. 민담의 세계와 극의 세계
- III. 민담의 현대적 변용
- IV. 서구희극의 수용
- V. 각 장르의 존재양상
- VI. 맺음말

I. 머리말

〈「맹진사대경사」는 오영진의 대표작이자 민족정서를 표현한 극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하여 해명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통수용 문제에 대하여 천착하였으며, 그 결과 「구령덩덩신선비」 설화,¹⁾ 「춘

* 고려대 박사과정. 주요 논문으로 「1930년대 프로연극연구」 등이 있음.

1) 권오만, 「오영진의 삼부작에 대하여-구비문학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972.

한동현, 「오영진의 희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9.

윤갑중, 「설화의 희곡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3.

김성희,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변형」, 『예술계』, 1985 여름.

김재석, 「맹진사대경사의 민담적 세계와 작가의식」, 『문학과 언어』 8집, 1987.5.

향전,²⁾ 「다구신화,³⁾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여기서 1943년의 상황에서 전통적인 소재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경우와 적극적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소극적인 경우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친일적인 목적극만을 작품의 소재로 취할 것을 강요당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일제말 군국주의 하에서 아무 것도 쓸 수 없어서 「맹진사댁경사」와 「배뱅이굿」을 썼다”는 오영진의 증언에⁴⁾ 비추어 보아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일제의 강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의 추구이다. 오영진이 전통과 민속적인 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음은 그의 자전적인 수필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전통적인 소재를 작품화함으로써 민족의 원형적인 심성과 고유의 사상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의미있게 생각한 것이다. 특히 「맹진사댁경사」에서는 세상에 유전하는 민담을 작품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공동의 민족의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이는 해방이후에도 「맹진사댁경사」를 지속적으로 개작하고 무대화·영화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맹진사댁경사」가 지금까지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오영진의 민족의식의 추구는 일면적으로는 성공했다 할

김일영, 「맹진사댁경사 재고」, 『한국희곡선』, 중문출판사, 1989.

서연호, 「오영진의 극작품 세계」, 『오영진전집』 2권, 범한서적, 1989.

한옥근, 『오영진연구』, 시인사, 1993.

2) 유민영, 「오영진의 극작품 세계」, 『오영진희곡집』, 동화출판사, 1976.

박매리, 「오영진 희곡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이동하, 「맹진사댁경사의 장르론적 고찰」, 『우리문학의 논리』, 정음사, 1988.

3) 김승옥, 「오영진의 삼부작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4) 유민영, 앞의 글, 454면.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소개를 수용한 극작품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현대에도 자주 공연되고 대중들에게 친숙한 작품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민담의 세계와 극의 세계

「맹진사댁경사」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권문세도를 꿈꾸는 맹진사는 김판서 대감의 아들 미연이와 갑분의 혼담을 성사시킨다. 그러나 결혼할 상대의 진정을 알고 싶은 미연은 자신이 절름발이라는 헛소문을 낸다. 곤경에 빠진 맹진사는 입분이를 대리신부로 내세우지만 정작 초례를 올릴 때 신랑이 건각미남임이 밝혀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외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맹진사의 가치관과 참된 마음을 얻고자 하는 미연의 가치관이 대립·충돌하여 궁극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선한 가치관이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극은 입분이를 중심으로 볼 경우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미천한 신분의 입분이는 서민적인 소망을 실현하는 민담적인 인물유형으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윤리성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의 결말에 이르면 그녀의 미덕에 비해서 과도한 행운을 차지하게 된다. 물론 민담에서 선한 의지의 실현이나 정상적인 가치관의 승리라는 교훈적인 내용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적인 인물이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펼쳐게 되는 사건의 흥미진진함에 있다.

탐욕적인 인간형인 맹진사가 몰락하리라는 것과 입분이가 미연과 결혼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며, 관객이나 독자는 이를 작품의 처음에서부터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자아와 세계

의 대결이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우위에 입각해서 전개되는 민담의 세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자아의 능력이나 지혜가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우위는 확고하다.⁵⁾ 이때 독자나 관객의 관심은 인물의 성격이나 실감나는 현실묘사보다는 주인공이 어떠한 사건을 거쳐서 행운을 성취하는가와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에 있다. 물론 '민담적 가능성'의 세계는 결말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이나 필연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강한 (낙천성) 외에도 인물의 구성에 있어서 (대립)의 법칙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맹진사댁경사」의 등장인물은 善·賢·美와 惡·愚·醜가 짝이 되는 민담적 인물의 전형적인 속성을 갖추고 있다.⁶⁾ 즉 긍정적 인물에 해당하는 입분이나 미연의 경우, 외모가 출중하고 심성이 고운 데 비해서 부정적 인물인 맹진사나 갑분이는 사욕과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열등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인물유형은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고서도 현실의 문제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며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해야 한다는 신념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⁷⁾ 민담적 세계관에 충실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맹진사댁경사」는 (민담)을 작품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민담의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나리오, 희곡, 음악극과 같은 공연예술로의 전이되었는지와 그 변용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와 유사성은 무엇인가에 있다.

서사의 하위갈래인 민담은 현실적인 그럴듯함이나 사건의 전개 등

5)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3, 121-122면.

6) 황패강 외,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91, 349면.

7)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7, 61면.

과 같은 문학적인 흥미와 진실의 교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 기계적·삽화적 구성에 의존하는 신화나 전설에 비해서 훨씬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⁸⁾ 그러나 민담에서는 한 인물을 위주로 하여 그가 겪는 사건들과 운세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 '갈등'의 심화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에 비해 극장르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사건의 흐름에 관여하며, 이로써 갈등이 형성된다. 즉 입본이를 중심으로 본다면 민담의 세계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로 맹진사와 김미연, 갑분이 등 다양한 개성적 인물들이 참여하여 복합적인 구성을 이룬다. 작품의 표면적인 줄거리를 끌여가는 맹진사의 계략도 단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미연의 적격자 시험에 종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한 민담은 이야기되는 것이 때문에 화자와 이야기거리, 청자를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발화되기 이전의 '이야기성'은 그 자체만으로 민담으로서의 기능을 얻지 못하며, 일단 활동적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완전해진다.⁹⁾ 이러한 면은 시나리오와 음악극, 희곡이 상연을 전제로 한 예술장르라는 사실과 유사하다.

따라서 민담의 이야기성과 역동성은 극장르로의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의 전승자에 의해 단순하게 구두로만 전달되는 민담에 비해서 극은 민담의 이야기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배우의 몸짓과 대사, 그리고 무대배경 등에 의해 훨씬 정교화되고 구체화된다. 또한 민담의 현실적인 그럴듯함이 극의 갈등구조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리하여 민담의 세계는 극장르로의 이전으로 인해 관객에게 생생하고도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

8) 임재해, 「한국설화의 존재양식과 갈래체계」, 『구비문학』 8집, 1985, 117면.

9) 주명희, 「한국민담의 전승고」, 109면.

Ⅲ. 민담의 현대적 변용

「맹진사댁경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소재원천으로서의 민담을 찾기 위한 작업에 치중하였다. 권오만은 오영진의 삼부작을 고찰하는 자리에서 「맹진사댁경사」가 「구렁덩덩신선비」를 소재의 원천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는 한씨가 절름발이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갑분이를 설득하는 장면을 들고 있다.

한씨 에그 딱두 해라. 여기 좀 올라온. 네가 펄펄 뛰는 심정이야 이 어민들 모르겠니만은 그렇다구 양반끼리 굳게 작정 정한 노릇인데 어찌면 좋냐, 갑분아! 네 깊이 생각 좀 해주려무나, 응?

입분 그럼...

갑분 싫어요. 그렇게 좋거든 어머니나 가지구려.

입분 에그 아가씨!

한씨 원 저런 년 말버릇 좀 봤나. 옛날 어디서는...

갑분 옛날 어디서요? 또 구렁이 이야기구료. 구렁이허구 혼인을 해서 정경부인까지 된 열녀가 있었드란 얘기죠? 어머니, 날 무슨 놀림감으로 아세요. 응.

권오만은 「구렁덩덩신선비」가 「맹진사댁경사」와 완전히 대응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절름발이에게 시집가기로 결심한 입분이가 민담에서 구렁이에게 시집가기로 한 처녀와 그 역할이 동일하며, 김미언이 자신을 절름발이인 것처럼 와전시켜서 신부감을 시험한 것은 신선비가 아내를 시험한 것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또한 입분이의 진정은 허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처녀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신선비」 설화는 “단순한 비유적인 예시가 아니고 작가의 의식 속에서 형성력을 발휘한 소재원천”이라고 파악하였다.¹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권오만의 견해에 수긍하였으며, 그 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맹진사댁경사」를 단순히 「신선비」 설화에 소재의 원천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틈슨의 분류에 따르면 「구렁덩덩신선비」는 민담유형 중 “잃어버린 남편 찾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맹진사댁경사」의 모든 사건은 결혼에 초점이 놓여 있으며 결혼과 동시에 끝난다. 반면 「구렁덩덩신선비」는 결혼 이후에 잃어버린 남편을 찾기 위한 탐색과 그 과정에서 처가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맹진사댁경사」에서의 시험은 신부후보를 고르기 위한 것임에 반해, 「신선비」 설화에서는 전처와 후처의 대결이다.

둘째, 「구렁덩덩신선비」의 경우 구렁이는 가피떡 장사를 하는 할머니나 가난한 과부의 자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한 구렁이가 이웃집 색시나 정승집 셋째딸에게 장가들게 해달라고 조르면서 만약 그러지 않으면 “칼과 불을 들고 복중으로 들어가겠다”고 할머니를 위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신선비」 설화에서는 남성이 미친한 가정에서 태어난 열등한 신분이고 여성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다. 반면, 「맹진사댁경사」에서 입분이와 미연은 판서댁 자제와 그녀의 결연이라는 점에서 신분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이와 관련시켜 볼 때 맹진사와 김정승의 역할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셋째, 「신선비」 설화의 셋째딸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라는 점이다.¹²⁾ 셋째딸이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게 된 원인은 외모만을 보고 구렁이를 열등한 존재로 평가한 두 언니들과는 달리 “구렁덩덩신선비를 낳았네”라고 말하여 구렁이 허물 속에 감추

10) 권오만, 앞의 글, 210-211면.

11)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3집, 1986, 172면.

12) 윤갑중, 앞의 글, 31면.

어진 신선비의 존재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¹³⁾ 구렁이에게 시집가기로 결심하는 것도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입분이는 맹진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결혼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넷째, 「신선비」 설화에서는 비록 구렁이와 구렁이 허물이 강한 상징성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구렁이가 허물을 벗어나 사람으로 되는 변신담에 해당하지만, 「맹진사댁경사」의 미연은 실제로는 불구의 몸이 아니면서 시험의 한 과정으로써 속임수를 썼다는 점에서 변신담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신선비」 설화에서 신선비는 아내에게 허물을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고 서울로 과거 보러 떠난다. 시기심이 많은 두 언니는 허물을 빼앗아 태워서 금제를 위반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신선비와 부인이 헤어지게 된 데에는 두 언니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갑분이와 맹진사는 그들에게 닦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뿐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신선비」 설화의 셋째딸이 잃어버린 남편을 찾기 위한 탐색여행에서 까치, 멧돼지, 빨래하는 아주머니, 새보는 아이 등을 만나서 갖은 고생을 한 후에야 남편과 재회한다. 그 후에도 물길기와 호랑이의 눈썹뽑기 등의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재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미연이 제시한 시험은 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입분이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에도 고난과 시련의 단락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딸과 같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남편과의 결합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선비」 설화와 「맹진사댁경사」 사이의 연관성은 극히 부분적인 데 그칠 뿐, 작품의 구조와 인물구성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신선비」 설화를 「맹진사댁경사」의 소재원천으로 파악한 기존의 견해는 수정되

13) 서대석, 앞의 글, 177면.

어야 한다.

「맹진사대경사」는 「구령덩덩신선비」와 같은 단일한 민담을 소재원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민담의 상위유형 중 “잘되고 못되는 사연”을 중심골격으로 삼으면서 민담에 나타난 다양한 모티프들을 변형시켜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⁴⁾ 물론 “잘되고 못되는 사연”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입분이의 운세이지만 작품의 전면에 부각되어 있지는 않으며 대신 맹진사의 현실적인 욕망과 좌절이 표면상으로 작품의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입분이를 중심으로 민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잘되고 못되는 사연” 중 “악인의 모해로 못되다가 원조자의 도움으로 잘되는 사연”에 가장 가깝다.¹⁵⁾

1. 입분이 동기간으로 여기던 갑분이가 김판서댁으로 시집가게 된다.
- 불행
2. 김명정이 입분이의 진정을 확인한다. - 의외의 행운
3. 맹진사가 대리신부가 될 것을 강요한다. - 의외의 불행
4. 초례를 올리는 날, 신랑이 건각미남임이 밝혀진다. - 의외의 행운

이처럼 입분이의 운세변화는 맹진사의 강요로 병신신랑에게 시집가게 된 데서 불행의 운세를 타고 있지만, 미언이 건각미남임이 밝혀지자 급작스럽게 행복한 운세로 변한다. 그러나 입분이와 미언의 결연은 신분질서가 동요되는 조선후기를 배경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사회적·신분적 계층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다.
16) 따라서 이는 민담적 가능성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

14) 민담에 대해서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평민사)를 참고하였다.

15) 조동일, 「한국설화의 분류체계와 “잘되고 못되는 사연”」, 『구비문학』 6집, 1981, 25면.

16)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 집문당, 1991.

한편 결혼을 성취하기까지의 입분이의 의지나 태도가 불분명하며 수동적인 경향이 강하다. 입분이의 선한 의지는 동기간으로 여기던 갑분이가 시집 가게 되자 자기도 몸종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장면에서 잠깐 드러날 뿐이다. 시나리오와 음악극에서는 갑분이가 뜬어온 아기도라지를 정성껏 다시 심는 장면에서 입분이의 고운 마음씨를 보이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녀의 신분에서 판서댁 며느리로 상승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인 ‘진정성’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입분이의 성품과 행위는 맹진사의 묘책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뿐이다. <이것은 입분의 “잘되고 못되는 사연”이 작품의 중심에 있지 않고 이면에 깔려있는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첨가된 몇 가지의 모티프들이 있다.

먼저 심성이 고운 하녀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신랑에게 주인의 딸을 대신하여 시집을 가는데, 뜻하지 않게 행운을 차지하고 免賤한다는 이야기는 민담에서 자주 발견된다.¹⁷⁾ 이를 「맹진사댁경사」에서는 대리신부 모티프로 활용하고 있다. 대리신부 모티프는 단순한 삽화에 그치지 않고 사건전개의 흐름에 급변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이것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맹진사의 계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미언의 적격자 시험이 전개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또한 인륜지대사인 혼인을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연산군 당시 사회를 피하여 도망하던 이증곤이 백정의 딸의 지성에 감화되어 부부의 연을 맺어 살다가 중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녀를 후부인으로 삼아 백년해로 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거의 모든 야담집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로서는 부인의 현철함으로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상당히 과격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김광순, 「순이와 문둥이 신랑」,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3, 234-237면.

매매혼 모티프가 있다.¹⁸⁾ 맹진사가 김판서 대감댁과 사돈을 맺는 것은 문벌을 높이고 세도를 누리려는 의도에 있기 때문에 선채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숙부인 맹효원은 가문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며 혼담을 퇴할 것을 명한다.

맹효원 적실이? 그렇다면 더우거나 고이허지가 않느냐. 그럼 이 물건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받았느냐, 응.

맹진사 전...선치라군 생각지 않았읍니다.

맹효원 뭣이 어째? 그럼 딸자식 팔아먹은 응당 받아야 할 값이란 말이나.

맹진사 작은 아버지...

맹효원 따져 말할 지경이면 이건 일종의 매매혼이야. 패물로써 딸자식을 파는 것이나 다를 게 뭐냐말야?

하지만 맹진사는 맹효원의 의중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매매혼 문제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속이고 속는 사연” 중 며슴이 주인딸에게 장가드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민담은 대체로 음담에 가깝다. 이 모티프는 희곡에서만 보여지는데, 입분이와 결혼하기로 되어있던 삼돌이가 맹진사의 계략으로 입분이가 갑분이 대신 시집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양반의 신의없음을 비난한다. 곤경에 처한 맹진사는 자신의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갑분이를 며슴인 삼돌이에게 주겠다고 약조한다.

맹진사 에그 정말 꼭두새벽에 온다드니 병신꼴에 부지런두하지. 까막하고 안에 들어가서 마님허구 입분이허구
...삼돌아, 헤...

18) 서연호, 앞의 글, 339면.

너 술먹으러 안가련? 길보허구 함께.

삼 돌 흥, 헐 일이 태산 같은데 술만 처먹어요. 신랑행차두 마중나
가야겠구 또 큰일 저질기 전에 신랑택에 귀땀두 해두어야겠
구.

맹진사 헤헤... 그만 두자. 네가 다 옳다. 옳아.

삼 돌 그럼 갑분 아가씨 주실테예요.

맹진사 갑분 아가씨? 액기 우라질 놈.

삼 돌 그럼...(일어선다)

맹진사 오냐, 오냐! 임마, 날 살려라. 줬다, 줬어! 아무거나 다 줄테
야. 임마, 자 인제 들어가. 길보야, 옛다 돈.

여기서 주인공과 결혼한 머슴 이야기는 맹진사의 몰락을 더욱 가
속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티프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르
서 삼돌이의 극중역할은 맹진사의 회극적 전략을 심각하게 만듦으로
써 회극적 구성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진사댁경사」는 민담의 “잘되고 못
되는 사연”의 유형구조를 작품의 근간으로 삼고 그 위에 민담에서
취한 몇 가지의 모티프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민담의 광범
한 전파력과 대중적 친연성에 기대어 대중적인 극형식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맹진사댁경사」는 여기에서
결혼에 얽힌 인물들간의 갈등과 허영심이 가득한 맹진사와 같은 인
물을 결합함으로써 현대극으로서의 특성을 가미하였다. <결혼을 둘러
싼 가치관의 대립과 선한 가치관의 승리는 서구희극의 전형적인 주
제이다> 「맹진사댁경사」에서는 서구희극의 전형적인 기법을 민담의
세계와 결합함으로써 현대의 관객이나 독자에게 민담의 세계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극적인 재미와 대중적 친화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서구희극의 수용

「맹진사댁경사」의 주된 인물은 맹진사로 그의 탐욕과 좌절이 작품의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맹진사와 같이 부정적인 인물이 자신의 과욕으로 인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은 주로 병렬적인 구조의 모방담에서 많이 나타난다.¹⁹⁾ 그러나 민담에서는 악인이 중심인물이 되어 좌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서구의 희극에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판단된다.²⁰⁾

맹진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화의 유형을 고찰해보면, “잘되고 못되기 사연” 중 “잘되다가 못되기” 사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잘되다가 못되기” 사연은 장자못전설과 같이 악인의 모해로 좌절하는 비극적 세계관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되다가 못되기” 사연에서 맹진사와 같은 악인이면서 어리석은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맹진사라는 인물유형은 민담의 전통적인 인간형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마는 희극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맹진사는 희극의 주인공인 ‘보통 이하의 악인’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맹진사의 희극적 인물로서의 특징은 족보를 고치면서 자화자찬하

19) 김난주, 「굿과의 관계에서 본 판소리의 기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7-8면. 「금도끼 은도끼」,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영감」과 같은 모방담의 대립·반복에 의한 발전구조는 「홍부전」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방담의 탐욕형 인물은 늘부형 인물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20) 박춘태, 「오영진 희극의 희극성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87. 이동하, 「맹진사댁경사의 장르론적 고찰」, 『우리문학의 논리』, 정음사, 1988.

서연호, 앞의 글, 346면.

서연호 교수는 오영진이 프랑스의 몰리에르 희극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21)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삼성출판사, 333면.

는 경박스러움이나 도라지골의 과객이 찾아왔을 때 황망히 구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겉치레를 중시하고 아랫사람에게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성품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맹진사 에헴! 난 말이야, 이제부터 말이야. 권세높은 김판서 대감의 사돈이야. (불시에 고성) 유물랑 얼른 가서 갑분 아가씨나 찾아와.

한 씨 참, 영감. 그러구 보니 영감께서 돈으로 사서 한 벼슬이지만 진사 하나 해두시기를 잘하셨군요. 아닌게 아니라 요새 세상에 진사쯤이야 대단찮은 벼슬이지만 그대두 안해둔 것보다는 나왔지! 안그래요?

맹진사 돈으로 사서 한 진사? 췌! 요 복출아. 누가 듣겠구료, 앵이. 당신땀에 내 평생이.....

맹진사의 허위의식과 이중성에 대한 아래사람들의 반감은 시나리오와 음악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음악극에서는 극의 시작부분이 돈으로 진사벼슬을 산 맹진사를 조롱하는 농부들의 노래로 되어 있다.

맹진사를 중심으로 단락소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판서와 사돈을 맺기로 하였다. - 행운
2. 미언이 배내 병신이라는 소문을 듣는다. - 의외의 불행
3. 갑분이 대신 입분이를 대리신부로 내세우기로 한다. - 의외의 행운
4. 미언이 건각미남으로 나타난다. - 의외의 불행

맹진사를 중심으로 본 단락소는 행운에서 불행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입분이의 운세가 불행에서 행운으로 상승하는 양상과는 대립적이다. 이 두 유형은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

건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맹진사의 몰락은 가중되고 입분이는 의외의 행운을 맞는다.

이처럼 맹진사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그의 권문세도를 탐하는 마음에 있다. 그는 딸의 혼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랑의 인물됨은 문제삼지 않고 오로지 가문과 세도만을 중시하였다. 신랑의 선도 보지 않고 혼처를 정한 것은 그의 증대한 결합으로, 이로 인해 미언이 절름발이라는 헛소문에 쉽게 속는다. 이리하여 양반집의 위신때문에 결혼을 타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외동딸을 병신사위에게 줄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맹진사는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대리신부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맹진사는 신랑이 절름발이라는 소문과 소문과는 달리 건각미남임이 밝혀지는 두 차례에 걸친 의외의 불행으로 완전히 몰락한다. 불행을 행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맹진사의 묘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언이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위한 시험에 종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 언 …… 사람의 마음, 더우기 여자의 마음, 그 마음의 참된 무게와 깊이가 알고 싶었던 것이요. 병신이라든가 거지라든가 돈이 있다든 없다든가 이것은 모두가 겉치레뿐이요. 이러한 부자나 영화에 취한 사람들하구두 사귀어볼대로 사귀어 봤구, 그 마음씨의 천박함에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겪은 나요. 내가 참으로 찾든 마음씨는 당신과 같은 참된 사람이요. 어떤 불평이라도 어떤 괴로움이라도 어떤 불안이라도 박차고 이겨나갈 만한 깨끗한 마음씨, 깨끗한 진실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도 속부를 통해서 잘 알았소. 당신이야말로 내가 찾든 아내요. 내가 구하든 배필이요. 이제야 참된 사람에게 내 손길이 스치어 보는 것같이 그윽한 행복을 느끼는 바요.

이처럼 미언이 추구한 것은 상대의 진정이었지만 맹진사와 갑분은 외모와 조건을 더욱 중시하였기 때문에 미언의 적격자 시험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맹진사댁경사」의 희극적 특성을 강화하는 인물로 맹노인을 들 수 있다. 맹노인은 희극적 상황을 조성하는 동시에 맹진사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연로하여 귀가 먹었으며 항상 비몽사몽시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맹노인은 현실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속도가 느리며, 그로 인해 맹진사의 계략을 그르치고 있다. 김판서 아들과 손녀딸과의 혼사를 김판서와의 결연으로 오해하는 대목이나 미언이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맹진사의 몸짓을 노래자 이야기의 경우로 착각하는 장면 등에서 맹노인의 희극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외에도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초례를 독촉하는 행위는 맹진사의 몰락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진사와 맹노인은 희극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그들은 무지와 오해로 인해 희극적인 상황을 조성하는가 하면 스스로의 계략에 말려들어 불행을 자초한다.

V. 각 장르의 존재양상

「맹진사댁경사」는 1943년 4월 『국민문학』지에 일문 시나리오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음악극과 희곡으로 다시 발표되었다. 사건전개와 인물구성은 거의 유사하지만 각 장르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약간의 개작이 가해졌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로의 개작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담을 작품의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민담의 유연성이 작품의 개작을 수월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대중성이 강한 장르로의 이전이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리라 보아진다.

시나리오와 희곡, 음악극은 모두 관객을 상징하고 창작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공연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극과 영화, 음악극의 본질적인 차이는 각각 대사와 영상, 음악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연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장면을 압축하여 보여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무대를 통하여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극의 진행은 많은 부분을 관객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에 비해 영화는 수없이 많은 영상의 연속으로 관객에게 인지되며, 편집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된다. 따라서 영화는 각 장면의 독립성이 강한 동시에 관객에게 높은 밀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연극과 영화의 이러한 차이는 희곡과 시나리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희곡은 종말을 향해 모든 사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비해, 시나리오에는 많은 장면들로 분할되어 있어 나열적이고 삽화적인 성향이 강하여 상영시에 영상에 대한 주의집중력을 불러일으킨다.²²⁾ 음악극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발랄함과 화려한 무대장치가 그 생명력이다. 특히 음악적인 요소는 극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해가기도 한다.

애초에 「맹진사댁경사」는 일문 시나리오로 발표되었다. 발표 당시에는 영화화되지 못하였다가 1956년 「시집가는 날」로 개제하여 이병일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흑백필름으로 제4회 아세아 영화제 특별희극상을 수상하였으며, 제8회 백림영화제와 제6회 시드니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4년 태국으로 수출되었다.²³⁾ 1962년에는 「맹진사댁경사」라는 예제로 이용민 감독에 의해 천연색 필름으로 제작되었다.²⁴⁾ 이 외에도 극장공연은 토월극회, 실험극장

22) 김용수, 「연극과 영화의 표현양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2.

23) 한국영화진흥조합 간, 『한국영화총서』, 1972, 353면.

등 여러 극단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67년에는 음악극 공연으로 한국연극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시나리오의 회곡에 비해 많은 장면으로 분할되어 각 장면간의 이동이 보여주는 박진감이 그 생명이다. 특히 오영진은 시나리오를 시간성의 예술로 규정하고 스토리 전개에 스피드와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쾌감을 중시하였다.²⁵⁾ 『맹진사댁경사』에서 영화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장면 97에서 장면 104까지이다. 혼례를 올리는 입분이의 모습과 운산골에서부터 갑분이를 데리고 다급하게 내닫는 삼들의 모습이 교차편집되어 있어 박진감이 넘치며 관객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음악극에서는 판토마임의 요소를 도입하여 희극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매매혼의 문제를 두고 맹효원과 맹진사의 견해가 대립되는 장면 중 양쪽의 입장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근친들의 심정을 우스꽝스러운 몸동작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맹진사와 박참봉이 미언이가 곱추라는 사실을 맹노인에게 알려주는 장면에서 어릿광대 같은 춤동작을 보여주기도 한다.

맹진사가 입분이를 대리신부로 내세우는 것도 회곡에서는 입분이가 갑분이에게 “진정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설득하는 것을 보고서 묘책을 발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음악극에서는 가족회의를 하는 와중에 맹진사의 대사가 곧 무대화되어 나타나 서로 다른 시간이 무대 위에 공존한다. 이처럼 사고의 과정과 현실의 일이 구분없이 존재하다가 미래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음악극의 화려하고 장중한 무대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곡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극중장소가 시종일관 맹진사댁 사랑으로 한정되어 있다. 회곡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삼들의

24) 위의 책, 581면.

25) 『오영진전집』 5권, 148면.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초례를 올리는 날, 맹진사의 계락을 폭로하겠다는 삼들의 협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진사는 입분이 대신 갑분이를 주기로 한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삼들이는 맹진사를 장인이라고 부르며 약속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결말처리로 인해 맹진사의 몰락은 시나리오나 음악극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고 극적인 양태를 보인다. 이는 희곡에서의 시간이 종말을 향해 집중되는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VI. 맺음말

오영진의 「맹진사댁경사」는 민담의 “잘되고 못되는 사연”을 작품의 근간으로 삼는 한편 그 표면에는 서양의 전통적인 희극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입분이를 중심으로 한 “잘되고 못되는 사연”의 민담유형은 특정한 시기에 두드러지는 구실을 하기보다는 어느 시기에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구조로서²⁶⁾ 범인들의 행운에 대한 소망을 적절히 승화시키는 동시에 이 작품의 대중성의 확보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맹진사를 표면에 내세운 전통적인 희극의 구조는 현대의 독자나 관객들이 민담의 세계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인물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위와 과욕으로 인한 좌절은 입분이의 상승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 두가지의 구조는 작품속에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서 혼례장면에서 절정을 이루어 행복한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간다. 이것이 바로 「맹진사댁경사」의 최대의 장점이며, 오영진이 성취하고자 했던 예술성과 통속성의 결합이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이다.

그러나 「맹진사댁경사」는 대중적인 극작품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

26)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230면.

고 할 수 있으나,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흔히 민담이란 그것이 유통되고 향유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한 점은 민담의 발전과정이 스스로가 만든 고난을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닌 민담에서 의외의 고난을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겨내고 행운을 성취하는 현실극복의 의지가 강화된 민담으로 진전되고 있음에서 잘 드러난다.²⁷⁾

그러나 「맹진사댁경사」의 경우 입본이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의외의 행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명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생동감이 넘치는 대사와 사건전개의 흥미진진함은 극적인 재미를 높여주지만, 현대극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연성과 사실성의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이 처음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작가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맹진사댁경사」는 전통적인 것에서 소재를 취하여 대중적인 극을 창작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나, 당대의 문제를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전통을 통한 민족의식의 구현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남기고 있다.

27) 조동일,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0, 137면.